

해남배추, 북미 수출량 1년만에 7배 늘었다

48톤 캐나다 수출 선적... 김치제조용 1000톤 공급 예정

해남군 대표 농산물 해남배추가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27일 해남군 화원면 지중해영농조합법인에서 해남배추 캐나다 수출을 위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적된 배추 물량은 48톤으로, 앞으로 1000톤의 해남배추가 캐나다 내 H-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해남배추는 지난해 캐나다 퀘벡거리의 A-MART에 처음으로 150톤이 수출된 이래 현지 교포 등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으로 1년만에 7배로 계약 물량을 늘려 추가 수출에 나서게 됐다.

김치의 경우 보관과 유통과정이 길수록 맛의 변화가 심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배추와 김치 양념을 분리해 수출함으로써 남도김치의 맛과 품질을 최대한 유지한 김치 수출로 수출 판로확대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6일 전라남도, 영암군, 회창물산(주), 동진무역, 지앤티웨이, 지중해영농조합, ㈜왕인식품 등 7개 기관·기업과 남도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배추를 수출하는 지중해영농조합 법인은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수출전문단지로 지정된 식품 등 7개 기관·기업과 남도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출업체인 지앤티웨이 조지호 대표는 “한국 김치는 K푸드의 대표주자로서 해외에서는 고급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지난해 캐나다 수출을 주도하면서 해남배추의 수출 가능성을 엿보았는데 앞으로 대박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선적식에는 김차진 부군수를 비롯한 서해근 부의장, 이성욱 의원 등 지역구 의원과 전라남도 농수산수출팀장, 회창물산, 지앤티웨이, 지중해영농법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배추 캐나다 수출을 기념했다.

해남군 김차진 부군수는 “올해 배추 가격 불안정으로 국내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북미지역 수출길이 확보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해남 농산물의 신규 판로 개척 및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순천 왕조1동통장협의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순천시 왕조1동통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7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왕조1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를 추진하여 김장 김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통장 74명이 한자리에 모여 절인 배추를 나르고 준비된 양념을 버무려 150포기 김치를 담갔다. 이후 정성스럽게 포장 용기에 담아 지역 경로당과 취약계층 등 50세대에 고루 전달했다. 이날 사용한 배추와 채로는 지역 농산물로 의미를 더했다.

박진숙 회장은 “우리 손으로 만든 김장 김치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돕는 왕조1동통장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장 담그기 행사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조례봉화사가 주변으로 설치된 화단에 겨울꽃을 식재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주변 상가 주민은 “주취자의 담배꽂조 투기로 바닥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꽃을 심고 쓰레기도 치워주시니 보기 좋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화순팜, 고객감사제 실시 전상품 30% 할인쿠폰

화순군은 다음달 17일까지 화순팜에서 연말 고객감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감사제는 할인쿠폰(전상품 30%, 신규회원 1,000원), 상품 리뷰, 한 줄 평 이벤트로 구성한다.

화순팜 회원들에게 전 상품 적용이 가능한 3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에게는 추가 1,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한 줄 평 이벤트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등을 화순팜 이벤트 페이지에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화순팜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상품 구매 후 리뷰(사진+텍스트)를 남겨준 회원 1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화순팜 상품을 증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화순팜을 이용해 주신 회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할인 폭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화순=주영현 기자

완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2년 연속 ‘우수상’

5개 마을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

완도군이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3,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도에서는 사업 추진 후 주민 참여도, 우수 마을 선정 건수, 추진단 운영 실적, 홍보 실적, 수반 사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수 으뜸마을 75

개소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완도를 주도마을, 군외면 영흥마을, 신지면 금곡마을, 청산면 진산마을·청계마을 등 5개 마을이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완도 주도마을’은 1960~70년대 수산물 수출이 호황을 이루던 시절 강아지도 5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던 과거 문화를 재조명하고, ‘군외 영흥마을’은 남쪽의 쪽빛 바다와 함께 걷는 남파랑길 86코스에 주민

주도로 쉼터를 조성하고 청정 갯벌을 무료 개방했다.

‘신지 금곡마을’은 태양광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치안유지와 불거리를 제공했다.

‘청산 진산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과거 기록물 전시, 슬로건기축제와 연계한 청산도 관광 콘텐츠 개발, ‘청계마을’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범바위에 조형물 설치 및 귀농산여촌마을과 연계한 화단 조성·도자기 문예 제작 등을 추진했다.

완도군은 천연자원 활용과 공모사업 연계, 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이두식 기자

목포시-신안군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 추진

목포시는 신안군과 함께 목포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는 고향사랑 안내 활동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되는 제도인 만큼 연말 업무 일정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 소속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을 활용, 홍보물 배부와 대표 답례품을 전시해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오랜 시간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어진 신안군과 연계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목포시와 신안군은 올해 목포·신안 단체장 상호기부 행사, 목포역 귀성객 맞이, 고향사랑의 날 동반 참석 등 고향사랑기부



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쏟고 있으며, 익일 신안경찰서 합동 방문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목포경찰서 직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혜택이 정말 많은 제도이고 기부의 보람과 지자체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추운 겨울엔 따뜻한 별과 빛의 도시 ‘광양주말여행’ 추천

내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유스퀘어·송정역서 탑승 ‘남도한바퀴’

광양시가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는 12월, 따뜻한 겨울을 여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남도한바퀴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 광양주말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은 전남도립미술관, 옥룡사동백나무숲, 배알도 섬 정원 등에서 파스란 겨울 햇볕을 충전하는 감성여행으로 내년 2월까지 토요일을 책임진다.

광주 유스퀘어(8시 50분)에서 출발하는 광양주말여행은 광주송정역(9시 20분)을 경유해 광양 원도심의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에술창고 등을 관람한다.

이어 서천변 광양불교기록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긴 후 옥룡사동백나무숲, 김시식지, 배알도 섬 정원 등 대표관광지를 투어하고 유스퀘어(18시 25분)에 도착하는 코스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2023. 기획전시 송필용 작가의 ‘물의 서사’,



황영성 초대전 ‘우리 가족 이야기’, 아트&테크 : 진동하는 경계들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선보인다.

옥룡사동백나무숲은 터만 남은 옥룡사지와 뻗백하게 둘러선 1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곳으로 나뭇가지 새로 비쳐 드는 별나기 인상적이다.

광양김시식지는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역사와 장소를 기리는 공간으로 김이라는 명칭의 탄생 배경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

망덕포구는 윤동주의 육필시고를 간직한 정병옥 가옥을 비롯해 시정원, 시 조형물 등 윤동주의 시 정신이 흐르는 공간으로 포구의 낭만은

넋이다.

배알도 섬 정원은 바다 위 낭만플랫폼으로 별해는다리, 해맞이다리 등 해상도로고 위에서 맞는 겨울바람이 상쾌하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 겨울테마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 광양주말여행’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여행프로젝트”라며 “겨울에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광양의 핵심 관광지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햇살 가득 광양주말여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요금은 24,900원(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이며 온오프라인에서 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안내 및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 남도한바퀴 카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신안 바다 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 주민·관광객에 무료

신안군은 2024년 1월부터 1004섬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여객선을 이용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도서 지역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여객선에서도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부재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로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비용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병풍도, 자은, 비금, 도초 등 신안군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9척의 여객선에 먼저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될 예정이며, 앞으로 서비스 범위는 더 확대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설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은 관광지,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60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신안=강축복 기자

고흥, 2026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동결

군민 가계부담 완화·물가 안정 기대

고흥군이 물가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현재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하수도 사용조례 심의회 등을 거쳐 고흥군의회 제320회 2차 정례회 본회의(2023. 11.)를 통과해 공포 예정 중이다.

이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0~10㎥(290원/㎥당) ▲업무용 0~21㎥(480원/㎥당) ▲영업용 1~30㎥(510원/㎥당) ▲목욕탕 0~200㎥(48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또한,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물가안정 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며, 이번 요금 동결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지난해 개정 완료해 올해 상수도 요금은 작년도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는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고흥=신용환 기자

강진,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변경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변경... 미질 좋고 도복 강해

강진군이 지난 24일 개최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3차 심의회’ 결과, 매입품종을 기존 ‘새청무·강대찬’에서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세 번에 걸친 심의회에서는 군청, 군의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 관내 농협 및 RPC, 농업인 단체가 참석해, 최근 대두된 강대찬 쌀의 미질 문제에 대한 논의와 품종 선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군은 당초 ‘새청무·강대찬’을 매입 품종으로 선정했지만,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반품 요구가 발생하는 등 강대찬 쌀에 대한 품질 논란이 불거졌고, 농업인 단체 및 농협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및 협의를 거쳐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청무’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전남 토지와 재배 여건에 맞춰 7년 동안 개발한 품종으로, 미질이 좋고 도복에 강하며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양 범위가 넓고 출수기가 분산되어 있어 재배 안정성이 타 품종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 공공미축미곡 매입 결과, 매입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군의 벼 재배 주력 품종인 ‘새청무’는 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해 왔다.

군은 새청무를 매년 3,000ha를 계약재배하고 농협 자금과 군비를 투입해 생산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보성, 영농폐비닐 집중수거지원 시범 운영

읍면별 수거일 하루 전까지 경작지 근처 도로변 배출 수거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영농폐비닐 집중수거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비닐 집중수거지원 시범사업’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비닐을 읍면별 수거일 하루 전까지 경작지 근처 도로변에 배출하면 보성군 수거지원반이 일괄 수거하는 것이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경작면적이 적은 소농가 및 고령자를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3일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12개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을 통한 영농폐비닐 배출요령 안내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

각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영농 기간 동안 사용한 영농폐비닐을 공동 집하장까지 옮기지 못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이어진 경우가 다수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잘 추진해 농촌 경관 훼손 및 산불 발생의 원인을 해소하고 더욱 깨끗한 청정보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농민과 민간단체의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공동집하장 58개소를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말까지 약 1,875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고 약 1억 8800만 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했다.

/보성=장국도 기자